

# 통속문화의 맥락에서 접근한 고전소설 교육의 방향

이지영\*

- I. 서론
- II. 교육과정에 따른 고전소설의 교과서 수록 양상
- III. 문학의 위상변화와 고전소설의 자리
- IV. 고전소설 교육의 새로운 방식
- V. 결론

## <국문초록>

문학교과서에서 고전소설은 주로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영역에 수록되고 있으며 수록편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고전소설이 근대 이전의 ‘과거의 문학’으로만 인식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그나마 수록된 고전소설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문학의 위기와 관련이 있으며, 문학의 위기는 서구의 근대문학을 기준으로 한 좁은 의미의 문학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문학의 외연을 넓혀 문화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고전소설 교육은 ‘고전’이 아닌 당대의 ‘통속문화’의 맥락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전소설을 통속문화의 범주에서 다룬다면, 오늘날 대중문화와 연계된 고전소설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교과서의 주제별 구성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갈래의 텍스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각 텍스트가 속한 갈래 및 매체의 특징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통합교육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핵심어: 문학교과서, 고전소설,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문학의 위기, 통속문화, 통합교육

## 1. 서론

고소설학회에서는 2005년도에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획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 성과를 단행본으로 간행하였으며<sup>1)</sup>, 2014년도에는 ‘고전소설의 교육과 수용’이라는 주제로 기획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sup>2)</sup> 또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는 2007년도에 ‘대학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에 대해<sup>3)</sup>, 2010년도에는 대학의 교양교육에서의 고전소설 활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sup>4)</sup> 이처럼 고전을 연구하는 여러 학회에서 고전소설 교육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은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고전소설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대학에서조차 고전소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지 않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기존 논의에서는 고전소설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고전소설 교육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안하였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고전소설에 대한 설명이나 작품 선택이 고전소설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sup>5)</sup>, 고전소설을 외면하는 것은 ‘고전’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이질감 때문으로 보고 번역을 중요

1) 한국고소설학회 편,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2) 서유경, 『고전소설교육 실행과 연구의 과제』, 『고소설연구』 제38집, 고소설학회, 2014; 김용기, 『교과 속 고소설의 정전화 양상과 교수·학습방향』, 『고소설연구』 제38집, 고소설학회, 2014; 정선희, 『고전소설 연구와 교육의 소통』, 『고소설연구』 제38집, 고소설학회, 2014 등 참조.

3) 정병현,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제1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권순궁,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지향과 방법』, 『한국고전연구』 제1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등 참조.

4) 김종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 교육의 과제』, 『한국고전연구』 제2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제2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등 참조.

5) 송성욱, 『고등학교 교과서 구성과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점』,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서인석, 『고전산문 연구와 국어교육』,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임치균, 『고전소설의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 방안』,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며<sup>6)</sup>, 현대적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sup>7)</sup> 이처럼 최근 10년 동안 고전소설 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교육방향과 해결방안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듯하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주로 강조된 것은 ‘고전’으로서의 고전소설 교육이었다. 이 경우 고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주요 과제가 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고전소설을 어렵고 공감할 수 없는 소설이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에게, ‘고전’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거나 다양한 매체를 동원한 학습법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sup>8)</sup> 그러나 ‘고전소설’을 ‘고전’으로서만 학습하면 학생들은 이를 공감할 수 없는 과거의 문학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고전소설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고전’소설 교육이 아니라 고전‘소설’ 교육이라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고등학교에서의 고전소설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재고해 보고자 한다. 우선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현행 고전소설 교육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고전소설 교육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sup>9)</sup>

## II. 교육과정에 따른 고전소설의 교과서 수록 양상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간행된 11종 문학교과서의 고전소설 수록편수는 많지 않다. 2009개정 교육과정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문학과 삶’의 내용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6) 송성욱, 위의 논문; 임치균, 위의 논문; 번역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의는 임치균, 『번역의 관점으로 본 한글 고전소설 현대어화의 실제』, 『돈암어문학』 제24집, 돈암어문학회, 2011 참조.

7) 권순궁, 앞의 논문.

8) 이민희, 『재미있는 고소설 교육을 위한 실천적 수업활동의 실제』, 『문학교육학』 제52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참조.

9)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문학교과서는 2009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의한 것이다. 2019년도부터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개편된 교과서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 개정된 교과서를 입수하지 못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기존 문학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교과서의 고전소설 수록 양상에 대해서는 조희경, 『2009개정 교육과정 시기 국어·문학교과서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연구』, 『고전문학교육』 제32집, 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참조.

영역에서는 고전소설을 2~4편 정도 수록하고 있지만,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서는 8종의 교과서에서 각각 한 작품만을 수록하고 있고, ‘문학과 삶’에서는 4종의 교과서에서 각 한 작품씩만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록양상은 현재 중등교육에서의 고전소설의 위치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즉, 문학교과서에서 고전소설은 ‘한국문학의 전통’이나 ‘한국문학사’와 연관되는 ‘과거의 문학’이며, 가치 있는 텍스트로서의 ‘고전(古典)’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고전소설이 주로 수록되는 영역인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의 시대구분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현행 문학교과서의 시대구분은 각 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                     |   |
|--------------|---------------------|---|
| 비상<br>(우현용)  | 4 한국문학의 흐름          | 1) 고대문학<br>2) 중세문학<br>3) 근세문학<br>4) 근대문학  |
| 비상<br>(한철우)  | 2 한국문학의 역사          | (1) 상고시대~고려시대의 문학<br>(2) 조선시대의 문학<br>(3) 개화기~일제강점기의 문학<br>(4) 광복 이후의 문학                               |
| 창비<br>(박종호)  | Ⅲ 한국문학의 역사          | 1 고대~고려시대의 문학<br>2 조선시대의 문학<br>3 개화기~해방 이전의 문학<br>4 해방 이후의 문학   |
| 지학사<br>(권영민) | 3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      | [1] 고대문학<br>[2] 중세문학<br>[3]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br>[4] 근·현대 문학 (1) 일제강점기 문학<br>[5] 근·현대 문학 (2) 광복 이후의 문학 |
| 미래엔<br>(윤여탁) | Ⅳ 한국문학의 흐름          | 1. 원시·고대 및 고려 시대의 문학<br>2. 조선시대의 문학<br>3. 개화기 이후의 근대문학<br>4. 해방기 이후의 현대문학                             |
| 두산<br>(김창원)  | Ⅲ.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1) | 1. 한국문학의 태동(상고시대)<br>2. 한국문학의 형성과 정착(삼국시대~고려시대)<br>3. 한국문학의 성장(조선시대)                                  |

|              |                      |   |
|--------------|----------------------|---|
|              | IV.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2) | 1. 한국문학의 전환(개화기~일제 강점기)<br>2. 한국문학의 모색과 발전(광복 이후~1970년대)<br>3. 한국문학의 다양화(1980년대 이후) |
| 신사고<br>(한승원) | II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 1.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징<br>2. 한국문학의 흐름과 사회 (1)<br>3. 한국문학의 흐름과 사회 (2)<br>4.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 천재<br>(김윤식)  | II.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 1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br>(1)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br>(2) 한국 고전문학 갈래의 전개<br>(3) 한국 현대문학 갈래의 전개      |
|              |                      | 3 한국문학과 시대 상황<br>(1) 한국 고전문학과 시대상황<br>(2) 한국 현대문학과 시대상황                             |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 대부분 교과서에서 ‘한국문학의 역사’는 개화기 이전의 고전문학과 이후의 근·현대 문학으로 양분된다.<sup>10)</sup> 그런데 고전과 근현대 문학을 이처럼 나누게 되면, 자칫 각 시대와 문학을 발전론의 측면에서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up>11)</sup> 그리고 고전소설을 오늘날까지도 가치 있는 ‘고전(古典)’이 아닌, ‘과거’에 향유되었던 소설로 인식하게 된다.

물론 고전소설이 생산되고 향유되었던 시기로 볼 때 고전소설이 ‘과거의 소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고전소설’로 지칭하는 작품들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이유는 ‘과거’의 문학이기 이전에 고전으로서의 가치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논하기도 전에 고전소설이 ‘과거의 소설’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과거의 고전소설은 ‘민족의 전통’이라는 점에서 중요시되었지만,<sup>12)</sup> 오늘날처럼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고전문학의 비중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10) 최홍원은 현행 문학교과서의 ‘문학의 수용과 생산’과 ‘문학과 삶’의 영역이 대체로 현대문학 중심이고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는 고전문학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고전문학 제제의 수록 맥락과 교육적 인식의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제3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31면)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이 영역을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양분하고 있다.

11) 김창원 외, 『문학』, 두산, 2012의 경우를 보면, ‘태동’, ‘형성과 정착’, ‘성장’ 등의 용어를 사용한 소재목에서 이러한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12) 이지영, 『일제 강점기 고소설의 ‘고전’ 형성 맥락』, 『고소설연구』 제38집, 고소설학회, 2014 참조.

고전소설을 과거의 문학으로 배치하고 있는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영역의 성취기준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7)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 (8) 한국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9) 한국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하여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 (10)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을 이해한다.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는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 ‘한국문학의 흐름’,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7)의 기준에 따라 한국문학의 전통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교과서에 수록되는 대표적인 작품은 선행연구의 지적대로 ‘고전’이기보다는 “금기와 제어 장치를 통과한 제한된 정전”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sup>13)</sup> 더구나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수록편수가 적기 때문에 (8)의 ‘시대 상황’이나 (9)의 ‘갈래’를 잘 드러내는 소수의 작품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수록양상을 통해서 이 점을 살펴보자.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현행 교과서에서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영역에 수록된 고전소설은 다음과 같다.

| 출판사          | 수룩작품    |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의 해당 목차         |
|--------------|---------|------------------------------|
| 두산<br>(김창원)  | <홍계월전>  |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1-한국문학의 성장(조선시대) |
| 미래엔<br>(윤여탁) | <홍계월전>  | 한국문학의 흐름-조선시대의 문학            |
|              | <홍부가>   |                              |
| 비상<br>(한철우)  | <이생규장전> | 한국문학의 역사-조선 시대의 문학           |
|              | <유충렬전>  |                              |
| 비상<br>(우한용)  | <이생규장전> | 한국문학의 흐름-근세 문학               |
|              | <사씨남정기> |                              |
|              | <홍부가>   | 한국문학의 특질-한국문학의 전통            |

13) 김동환, 『국어과 교과서의 문학 제재와 관련된 쟁점과 제안』, 『국어교육학연구』 제47집, 국어교육학회, 2013, 50~51면.

|              |          |                                |
|--------------|----------|--------------------------------|
| 상문<br>(김대용)  | <만복사저포기> | 한국문학의 역사-중세문학                  |
|              | <홍부가>    | 한국문학의 역사-근대 태동기 문학             |
| 신사고<br>(이승원) | <홍부가>    |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                   |
|              | <이생규장전>  | 한국문학의 흐름과 사회 (1)               |
|              | <사씨남정기>  |                                |
| 지학사<br>(권영민) | <만복사저포기> |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중세문학              |
|              | <소대성전>   |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
| 창비<br>(박종호)  | <호질>     | 한국문학의 역사-조선시대의 문학              |
|              | <춘향가>    |                                |
| 천재<br>(정재찬)  | <이생규장전>  | 한국문학의 이해-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서사갈래의 흐름 |
|              | <홍부전>    |                                |
|              | <임진록>    | 한국문학과 시대상황-역사의식의 표현            |
| 천재<br>(김윤식)  | <운영전>    |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한국 고전문학 갈래의 전개    |
|              | <사씨남정기>  | 한국문학과 시대상황-한국고전문학과 시대상황        |
| 해냄<br>(조정래)  | <홍부가>    |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         |
|              | <이생규장전>  |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서사 갈래의 흐름         |
|              | <사씨남정기>  |                                |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에 수록된 소설 중에서 두 드러지는 것은 전기소설(傳奇小說)과 판소리계 소설이다. 11종 교과서의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영역에서 고전소설은 중복을 포함하여 총 25회 수록되었는데, 그 중에서 판소리 혹은 판소리계 소설을 수록한 교과서가 7종으로 28%이고 구체적으로는 <춘향전>이 1종, <홍부전>( <홍부가>)가 6종이다. 전기소설은 8종의 교과서에서 수록하였고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그중에서 <이생규장전>이 5종, <만복사저포기>가 2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영웅소설은 판소리계 소설(혹은 판소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4종의 교과서에서만 수록되었는데, 이중에서 <홍계월전>은 2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그밖에 <사씨남정기>가 4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한편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영역에 수록된 고전소설은 모두 11편인데, 이 중 2종 이상의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이 5편이다.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특정유형, 특정작품에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록횟수가 많은 작품이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회 수록된 <홍부전>( <홍부가>)이나 5회 수록된 <이생규장전>, 4회 수록된 <사씨

남정기>, 3회 수록된 <홍계월전>의 수록횟수가 ‘고전’으로서의 가치와 정비례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고전소설 수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영역에서는 어떠한가?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서는 8종의 교과서에서 각 한 편씩 고전소설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 연암 박지원의 한문단편소설만 3편이고 전기소설(傳奇小說)에 해당하는 작품이 2편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각 교과서의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에 수록된 고전소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출판사      | 수록작품    | <문학의 수용과 생산>의 해당 목차        |
|----------|---------|----------------------------|
| 두산(김창원)  | <이생규장전> | 서사문학의 수용과 생산               |
| 미래엔(윤여탁) | <최척전>   |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작품 수용과 평가      |
| 비상(한철우)  | <사씨남정기> | 서사문학                       |
| 상문(김대용)  | <허생전>   | 맥락을 이용한 수용                 |
| 신사고(이승원) | <홍계월전>  |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
| 지학사(권영민) | <호질>    | 문학의 수용                     |
| 천재(정재찬)  | <사씨남정기> | 문학의 소통과 향유/문학작품의 이해/문학과 맥락 |
| 해냄(조정래)  | <광문자전>  | 문학의 비판적 창의적 수용             |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에서 학습해야 할 세부내용은 ‘① 문학작품의 구성원리’, ‘② 문학과 인접분야’, ‘③ 문학과 매체’, ‘④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의 네 가지이다.<sup>14)</sup> 이 단원은 문학작품의 ‘이해·감상·평가’를 학습하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중에서 고전소설은 ‘① 문학작품의 구성원리’와 ‘④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영역에서 수록하고 있다. 두산(김창원), 비상(한철우)에서는 문학의 네 갈래인 서정·서사·교술·극 중에서 서사문학을 학습하는 단원에서 고전소설을 수록하고 있는데, ‘① 문학작품의 구성원리’를 이해하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④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부분에서 고전소설을 수록하고 있다.

14) 2009개정 교육과정, 135면.

수록 작품을 선정할 때 고려되었을 2009개정 교육과정의 작품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sup>15)</sup>

- (가) 문학사적 기준과 비평적 안목에 비추어 타당하고 전이성이 높은 작품
- (나) 내용과 형식, 표현 면에서 문학의 전형성을 보여주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
- (다) 학습자의 관심 및 생활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작품
- (라) 자아 성찰, 공감과 소통,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참여 의식 등 학습자의 인성 발달과 관련 있는 작품

그런데 (가)와 (나)의 기준을 적용하면 ‘근대소설’의 미학적 기준에 따라 고전소설보다는 현대소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구성된 문학교과서의 ‘문학의 생산과 수용’ 영역에서 고전소설이 교과서별로 각 1편 이하만 수록된 이유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수록된 고전소설은 (다)와 (라)의 기준에 따라 선택되는데, 종종 ‘근대성’과 관련이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지는 고전소설이 선택된다. 연암 박지원이 쓴 한문단편소설이나 여성영웅소설의 수록빈도가 높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또한 이미 인정된 대표작품을 수록하는 경향도 강해서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영역에서 수록빈도가 높았던 <이생규장전>이나 <사씨남정기>을 수록하지 않은 교과서에서는 ‘문학의 생산과 수용’에서 이들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영역별 성취기준이 아닌 ‘알아야 할 고전목록’에 의해 수록되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인데,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새로운 문학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을 듯하다. 2015개정 교육과정을 2009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문학의 생산과 수용’,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문학과 삶’의 큰 범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sup>16)</sup> ‘문학의 본질’과 ‘문학에 대한 태도’가 별도의 영역으로 제시되고

15) <2015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문학’ 교과서의 ‘교수·학습 방법’의 ‘가 교수·학습 계획’의 (5)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6) 김현정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기초가 2009개정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교수학습 방식에서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논한 바 있다.(김현정, 『2015개정 ‘문학’ 교육과정 적용의 쟁점 탐색』, 『문학교육학』 제55집, 문학교육학회, 2017.)

있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사실상 2009개정 교육과정의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과 ‘문학과 삶’의 일부 영역을 독립시킨 것이다. 이처럼 2015개정 교육과정의 전체 틀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틀이 유지되는 한 새로운 교과서 또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sup>17)</sup>

이러한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문학교육의 기조는 근대문학을 기준으로 한 문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고전소설은 주로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영역 안에서 수록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요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하도록 하며 “지나치게 학습 내용이 방대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결국 수록된 고전소설 목록은 지금의 문학교과서와 유사한 가운데 수록 작품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III. 문학의 위상변화와 고전소설의 자리

#### 1

그런데 교과서에 고전소설이 좀더 수록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고전소설 연구자로서 어쩔 수 없는 편향적 시각 때문이 아닌가? 어차피 고전소설은 ‘과거’에 속하므로 학생들에게 과거의 사례로 한 두 작품을 보여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교과서에 지나치게 많은 작품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현행 문학교과서에서 고전소설의 수록빈도가 낮은 것은 크게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근대문학을 기준으로 한 문학교육 자체의 위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학이 미술이나 음악 등과 함께 ‘예술’의 일종이며 작자의 주체의식이 구현된 창작물이라는 근대적 문학관은 오랫동안 ‘문학’의 개념으로 당연시되어온 것이다. 그리고 문학교육은 심미적 활동으로서 문학적 체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17) 최지현, 『2015개정 교육과정과 문학교과서의 도전』, 『청람어문교육』 제57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6.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학교교육에서 문학을 배움으로써 창조적 수용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학은 교양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었다.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지루하더라도 자신의 안목과 품위를 높이기 견딜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의 위상은 오늘날 위협받고 있다. 고전소설만 외면받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자체가 이제는 외면받고 있다.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나 교과서 속의 작품들이 외면받는 현실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무슨 작품이든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재미가 없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문학 연구자들은 실용학문을 외면하는 ‘인문학의 위기’와 관련시킨다.

그러나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이 현실에 적용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문학 또한 그러하다. 심미적 가치가 중시되는 예술로서의 문학은 더 이상 예전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sup>18)</sup> 좁은 의미의 문학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오늘날 문학이 외면받는다 고 한탄하지만, 문학의 개념과 범주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다. 근대 이후 형성된 문학의 개념은 20세기 이후에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문학교과서는 보수적으로 문학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의 내용은 점차 현실과 멀어지게 된다. 학생들이 문학교과서를 따분하게 여기는 것은 단지 고전문학 만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고전소설의 수록편수가 줄어든 것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달라진 문학의 개념 및 문학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보다 시급할 것이다. 따라서 고전소설 교육의 방향은 전체 문학교육의 구도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과정에서도 문학의 정의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교육과정의 문학에 대한 정의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2015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에서**

“문학은 인간의 체형과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이자 소통 행위이며, 개인

18) 이영미, 『문학사학을 위한 시론』, 『국제어문』 제36집, 국제어문학회, 2006; 천정환,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 『상허학보』 제19집, 상허학회, 2007 등에서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 및 미의식을 담은 문화의 한 양식”

**\*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국어1’의 세부내용 중에서**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형상화하여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예술”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을 ‘언어예술’이라고 하였는데,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예술이자 소통행위’라고 하였다. 언어예술이라는 점은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소통행위’를 대등하게 제시하고 있어 문학을 정의하는 유개념(類概念)의 변화가 감지된다. 또 그 다음에 덧붙여서 ‘문화의 한 양식’이라고 하였다. 예술, 소통행위, 문화가 문학이라는 동일 범주에 포괄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럽지만, 이러한 형태로 문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언어예술’로서의 문학개념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문학을 문화의 범주 안에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촉발된 문화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문학의 위상 변화가 교과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교육과정에서조차 좁은 의미의 ‘문학’개념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존의 문학개념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문화의 한 양식으로서 문학을 거론한 이상, 문학이 아닌 문화로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국문학계 안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문학교육에서 문화론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문학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sup>19)</sup> 근대문학 연구자 중에는 문학연구가 아닌 문화연구를 표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sup>20)</sup> 또한 종전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대중문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점차 늘고 있다.<sup>21)</sup> 나아가 서구의 근대를 기준으로 형성된 우리 문학사 인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sup>22)</sup>

19) 김종철, 『문학교육의 문화론적 관점』, 『국문학과 문화』, 한국고전문학회, 2001 참조.

20) 천정환·정종현, 『대한민국 독서사』, 서해문집, 2018; 권보드래 외,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상상, 2015; 천정환, 『대중지성의 시대』, 푸른역사, 2008 등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21) 이영미, 『한국 대중가요사』, 시공사, 1998이나 최미진, 『한국 대중소설의 틈새와 심층』, 푸른사상, 2006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1970년대 청년문화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시속에 편승한 것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근대문학 연구의 새로운 움직임은 고전문학 연구자들에게는 이미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근대문학 연구자들이 비교적 최근에야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대중가요나 대중소설은, ‘통속적’이라는 점에서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이미 다루고 있는 많은 텍스트와 닮아 있다.

고전소설의 경우만 해도 그러하다. 방각본 소설은 19세기의 대중소설이었고, 장편한글소설은 사대부가 여성들이 즐겨 읽었던 소설이었다. 당시에 통속적이라는 이유로 문학성을 높이 평가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전소설은 20세기 대중소설과 그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고전소설이 ‘고전(古典)’이라는 수식에 걸맞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클래식(Classic)’ 혹은 ‘고전’이란 단어는 상층지식인의 문화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고전소설의 상당수는 당대의 통속문학이었다. 그나마 조선시대 소설에 ‘고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상황에서 형성되었던 국학(國學) 덕분이었다.<sup>23)</sup>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고전소설을 배워야 할 가치있는 문학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공허해 보인다. 서구의 근대소설을 기준으로 하는 한, 조선시대 소설은 ‘고전’으로서 자리매김 되기 힘들다. 그러한 소설을 ‘고전’으로 떠받쳤던 것은 민족주의의 힘이었지만, 오늘날 민족주의와 근대의 가치는 동시에 부정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고전’소설이라고 강조하였던 조선시대 소설은, 이제 민족주의의 맥락을 떠나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 바로 ‘통속문학’이다.

## ②

흔히 문학교과서에서는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를 ‘인물·배경·사건’이라고 하며 서사문학을 “우리 주변에서 있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 서술자가 들려주는 문학”<sup>24)</sup>이라고 설명한다. 또 작자는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미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고려하여 시점을 선택”<sup>25)</sup>한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대로라면 소설에서는 작자의 주제의식

22) 박현호, 「낭만, 한국 근대문학사의 은폐된 주제」, 『한국학연구』 제25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23) 이지영, 앞의 논문 참조.

24) 한철우 외, 『문학』, 비상교육, 2012.

과 미적 효과가 무엇보다 중시된다. 그러나 서구 근대소설을 기준으로 한 이러한 설명이 고전소설에는 그다지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은 따분해 하는 학생들도 판타지 소설이나 로맨스물은 자발적으로 읽는다. 학생들에게 소설은 여전히 통속적인 읽을거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소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수업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판타지 소설 같은 통속적인 문학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미적 효과가 뛰어난 소설을 읽을 수 있도록 안목을 기르는 것이 소설교육의 목표가 될 것인가?

현재 문학교과서에서는 매체가 다른 영화·만화·드라마는 다루고 있으면서도, 판타지 소설과 같은 통속소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통속소설은 교과서의 문학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다. 교과서에 실린 소설은 재미 없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교과서에서는 흔히 말하는 재미있는 통속소설을 수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판타지 소설과 같은 통속소설이 반드시 문학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판타지 소설을 통속적이라고 폄하하는 사람이라도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 통속적이고 저속한 판타지 소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지의 제왕>은 교과서에서 규정한 소설의 개념, 즉 “우리 주변에서 있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 서술자가 들려주는 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 판타지 소설은 일상적 경험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통해서 흥미로운 서사를 전개하며 그중에는 <반지의 제왕>처럼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들도 있다. 모든 판타지 소설이 <반지의 제왕>의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며, 이야기 전개가 조잡한 수많은 판타지 소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로 판타지 소설 전체를 폄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과정에 의해 구성된 문학교과서에서 ‘소설’의 개념을 매우 좁혀 놓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문학교과서에서는 고전소설이 ‘과거의 문학’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고전소설에 공감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는 것은 고전소설에서 통속문학의 맥락을 제거하고 ‘전통’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속문학의 맥락 안에서 ‘소설’의 의미를 재맥락화 한다면 고전소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문학 수업시간에는 따분해 하는 학생들이라도 ‘소설’ 자체에는 관심이 많다. 오늘날 학생들에게 익숙한 소설 부류 중 하나는 웹소설이다.<sup>26)</sup> 많은 학생들은 ‘조아라’(www.joara.com) 같은 웹소설 플랫폼을 통해서 활발하게 소설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기존의 출판소설과는 달리 독자와 작자의 경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다. 독자로서 소설을 읽기만 하다가 작자로 소설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소설들은 판타지·로맨스·무협·팬픽 등의 유형이 뚜렷하여 유형화된 통속소설의 속성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 또한 10대와 20대에게 인기 있는 비주얼노벨 게임은 유형화된 서사 전개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임인데, 소설 읽기와 쓰기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게임을 즐기면서 이미 ‘서사’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이나 웹소설의 속성은 교과서에 수록한 근현대 소설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고전소설의 내용이나 향유방식과 유사성이 뚜렷하다. 바로 이 점에서 고전소설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전승되는 조선시대 소설 중에 서구의 근대소설을 기준으로 한 ‘고전’의 명칭에 걸맞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몇몇 작품에 대해서는 인문교양을 위한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조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조선시대 소설이 모두 그런 전통적인 ‘고전’으로서만 의미를 지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보다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통속문학의 흐름 속에서 고전소설의 가치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이 점은 영웅소설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오늘날 할리우드의 히어로 영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마블사의 어벤져스 시리즈는 만화와 영화를 넘나들며 국내에서도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히어로 영화의 구도는 조선시대 영웅소설과 유사하다. 바로 보통의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영웅이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 활약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히어로물이 과거와 현재, 미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대중적 인기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 속 문학의 범주를 확장한다면, 한국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논할 소재

26) 현재 웹소설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2016년에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구르미 그린 달빛>는 웹소설의 누적 조회수가 5천만 건을 넘어서는 큰 인기를 끌었다.『IP 비즈니스 기반의 웹소설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 2018.)

를 고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오늘날 대중문화를 과거의 문학과 관련시켜 논의함으로써 과거의 문화와 오늘날 문화의 특징을 오히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고전’으로서의 가치는 ‘고전’임을 주장한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는다. ‘고전’은 오늘날 문화적 맥락 안에서 호명됨으로써 ‘고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 과거에 고전소설을 호명한 이유가 ‘민족주의’라면 오늘날에는 통속문화의 전통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대문학을 기준으로 한 문학교과서의 전체 틀이 바뀌어야 한다. 문학의 범주가 문화로 확장되고, 예술의 심미적 기준을 넘어서서 통속문화에서의 삶을 다루게 될 때, 고전소설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

#### IV. 고전소설 교육의 새로운 방식

##### ①

고전소설 교육이 통속을 아우르는 문화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것인가? 우선적으로는 내용영역과 성취기준에 따라 구성된 현재 문학교육의 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영역별 구분은 갈래와 시기에 따라 작품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맥락 안에서 소설을 이해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문학교과서에서 고전소설의 의미는 문학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제재라는 데 있었다. 따라서 교육에서도 문학사의 흐름과 갈래에 대한 이해가 중시되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영역의 내용요소를 ‘개념과 범위’, ‘전통과 특질’, ‘갈래별 전개와 구현양상’, ‘문학과 시대상황’, ‘한국문학과 외국문학’, ‘한국문학의 발전상’의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갈래별 전개와 구현양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27) 김종철, 앞의 논문, 2001에서도 문학교육에서 대중문학에 대한 유연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성취기준은 한국문학의 갈래와 그에 속하는 구체적인 작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한국문학 작품을 통해 문학의 기본 갈래가 언어의 성격에 따라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의 세 영역 아래 다양한 역사적 갈래로 구현된 양상을 탐구하도록 한다. 너무 긴 고전시가보다는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길이의 작품을 선정한다. 역사적 갈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강조하기보다는 대표적인 작품감상을 토대로 문학갈래 전개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위의 해설에서는 ‘갈래별 전개와 구현양상’에서 학습자가 배워야 할 것이 ‘한국문학 갈래에 속하는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역사적 갈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작품감상을 통해 문학갈래 전개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의 영역에서 역사적 갈래에 대한 수업을 한다면 아무리 작품을 통해서 지도하더라도 지식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은 동일한 갈래에 속하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갈래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갈래를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길이가 비교적 짧아서 텍스트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시가작품보다는, 분량이 길어서 일부만 수록되고 나머지는 줄거리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고전소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소설의 경우에는 단편이라고 해도 문학교과서에서 소설 전체를 수록하는 일은 거의 없어 학생들은 소설을 온전하게 감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역구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영역구분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목적을 “다양한 문학경험과 활동을 통해 작품을 수용·생산하는 능력을 기르고 문학에 관한 소양과 태도를 함양하여 문학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문학작품의 수용·생산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문학능력을 기르고 문학의 본질과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여 타인 및 세계와 소통하며 자아를 성찰하고 문학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문학문화’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문학을 향유할 수 있고 문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양으로서의 문학능력과 문학에 대한 이해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학교육은 ‘문학문화’의 발전보다는 ‘인간의 이해’에 더 강조점이 놓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인간의 이해를 위한 문학교육을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지시하는 영역 및 성취기준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문학의 이해를 위한 영역구분을 폐지하고 ‘주제’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전쟁’, ‘가족’ 등의 주제를 선택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한 설화, 고전소설, 현대소설, 한시, 가사, 현대시, 수필 등을 묶어서 하나의 장을 구성한 뒤에 ① 각 텍스트에서 해당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② 텍스트의 차이가 시대의 차이 혹은 갈래의 차이인지, ③ 텍스트와 당대 현실의 관계는 어떠한지, ④ 오늘날의 경우는 어떠한지 등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다.<sup>28)</sup>

이렇게 되면 문학교과서의 체제도 달라지게 된다. 사실 1) 문학의 본질,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3)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4) 문학에 대한 태도 등 각 영역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은 주제별로 장을 구성하더라도 이룰 수 있다. 고전과 현대를 망라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별한다면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용이하며 주제를 통해 ‘문학의 본질’ 영역에서 요구하는 ‘인간과 세계의 이해’나 ‘삶의 의미 성찰’을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 또 해당 주제를 가지고 오늘날의 시각에서 새로운 텍스트를 창작하도록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고전소설을 더욱 다양하게 수록할 수 있다. 예컨대 ‘가족’이라는 주제로 수업한다면, 장편대하소설을 주요 텍스트로 다룰 수 있다. 고전소설 중에서 교과서에서는 거의 수록된 적이 없지만<sup>29)</sup> 조선 후기 상층여성의 문학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장편대하소설이다. 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편대하소설이 중등교육에서 활용되지 못

28) 류수열은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기존에 매우 느슨하게 시도되었던 주제 중심의 접근을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류수열,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영역의 논리』, 『국어교육학 연구』 제51집, 국어교육학회, 2016, 153면) ‘문학’에 대한 기본개념의 변화 없이 2019년부터 사용될 문학교과서에서 과연 이러한 시도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김현정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서 “통합적 교수·학습”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김현정, 앞의 논문, 141면), 이 글에서 제안하는 ‘주제’ 중심의 구성이 통합교육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9)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천재교육(김윤식)의 문학교과서에서 <완월회맹연>이 보조자료로 수록된 적은 있다.(한길연,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고전 대하소설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고전 문학과교육』 제32집, 고전문화교육학회, 2016, 124면 참조.)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분량때문으로 지적된다.<sup>30)</sup> 그러나 분량이 길어도 필요성이 있다면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고전장편대하소설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내용을 제시한 바 있는데<sup>31)</sup>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는 작품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량을 문체를 감수하면서 굳이 낮은 고전장편대하소설 텍스트를 수록해야 이유를 좀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sup>32)</sup> 주제별 구성에서는 그러한 이유를 마련하기 용이하다.

②

주제 중심의 교과서 구성은 고전소설의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동시에 매체에 따른 서사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도 유용하다. 2009개정에 따른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의 ‘문학과 매체’를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              |                                |
|--------------|--------------------------------|
| 두산<br>(김창원)  | 박경리의 <토지>를 원작으로 한 <만화>         |
|              | 영상시로 제작된 정호승의 시                |
| 미래엔<br>(윤여탁) | 이정명의 소설 <뿌리 깊은 나무>를 각색한 드라마 대본 |
|              | 인터넷 영상시 <흑백사진-7월>              |
|              | 세익스피어의 <햄릿>을 원작으로 한 영화         |
| 비상<br>(우한용)  | 소설 <내 마음의 풍금>을 원작으로 한 영화       |
|              | 이태준 소설 <북덕방>을 원작으로 한 만화        |

30) 한길연, 같은 논문에서도 이점을 지적한 바 있다.

31) 한길연, 같은 논문, 127~138면.

32) <홍계월전>은 오늘날 사회적 요구에 의해 교과서에 수록된 대표적 사례이다. <홍계월전>은 7차 교육과정의 의해 개정된 문학교과서에서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여 2007개정 교육과정 및 2009개정 문학교과서에서 모두 3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 문학교과서의 <홍계월전> 수록양상은 이기대,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본 <홍계월전>의 정전화 과정』, 『우리문학연구』 제37집, 우리문학회, 2012 참조; 2009개정 교육과정의 고전소설 수록양상에 대해서는 조희정, 앞의 논문 참조.) 교과서 수록에 힘입어 <홍계월전>은 대표적인 여성영웅소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홍계월전>에서 여성이 남장을 하고 활약하며 남성을 압도하는 내용은 여성이 억압되던 당대 상황에서의 소설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성문제를 접근하기에도 용이하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홍계월전>이 문학교과서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
|--------------|--------------------------------|
| 비상<br>(한철우)  | 영상시로 제작된 나희덕의 <땅끝>             |
|              | 박경리의 <토지>를 원작으로 한 <만화>         |
| 상문<br>(김대용)  | 소설 <오발탄>을 원작으로 한 영화 <오발탄>      |
|              | 박경리의 <토지>를 원작으로 한 <만화>         |
|              | 인터넷 시 <빈집이지만>                  |
| 신사고<br>(이승원) | 이청준의 <남도사람>을 원작으로 한 영화 <서편제>   |
|              | 박범신의 블로그 연재소설 <출라체>            |
| 지학사<br>(권영민) | 인터넷 영상시 최영미의 <선운사>에서           |
|              | 소설 <내 마음의 풍금>을 원작으로 한 영화       |
| 창비<br>(박종호)  | 이정명의 소설 <바람의 화원>을 원작으로 한 만화    |
| 천재<br>(김운식)  | 인터넷 영상시 정끝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
| 해냄<br>(조정래)  | 영상시 이근매의 <세한도-벼루 읽기>           |
|              | 인터넷 소설 - 은희경 <소년을 위로해 줘>       |
|              | 이정명의 소설 <뿌리 깊은 나무>를 각색한 드라마 대본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현행 문학교과서에서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만화·영화·애니메이션·드라마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으며 인터넷 영상시와 블로그 소설 등도 들어가 있다. 오늘날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새롭게 향유되는 문학의 변화양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있는 문학은 현대시와 현대소설로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새로운 형태의 현대시와 현대소설의 학습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방식의 학습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학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다. 문학을 중심을 두고 문학작품이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었을 때의 ‘미적인 특성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오늘날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 2009개정 교육과정과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학과 매체’의 성취기준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학작품은 서적의 형태뿐만 아니라, 언어로써 소통되는 라디오, 영화, TV, 애니메이션, 인터넷, 휴대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통된다. 매체는 저마다의 특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문학작품이라도 이를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이 반영되어 미적인 특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심미적 체험은 내용뿐 아니라 전달매체의 특성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루어져 함을 이해하고 다매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학작품을 향유하도록 한다.(2009개정 교육과정)

오늘날 문학작품의 소통은 신문, 잡지, 단행본 등 기존의 매체 외에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애니메이션,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동일한 작품이라도 이를 전달하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작품의 지적인 특성이나 감상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전달 매체의 특성이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을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도록 지도한다.(2015개정 교육과정)

표현은 조금 다르나 문학작품이 다양한 매체로 소통될 수 있다는 점, 매체가 달라지면 작품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 매체에 따른 텍스트의 변화를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는 것을 학습내용으로 한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다매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학작품을 향유”한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을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한다고 바뀌었지만, 매체가 아닌 문학이 중심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도 문화의 맥락에서 매체를 다루지는 않을 듯하며, 문학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매체로 전달되었을 때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그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성세대보다 다양한 매체에 익숙한 요즘의 학생들은 오히려 문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매체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 매체가 존재하는 문화 전체에 주목하였을 때, 매체와 문화의 특징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영화의 경우를 예로 들면 문학작품이 영화로 제작된 것을 원작과 비교하는 것이 현행 교과서의 일반적 형식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문자가 아닌 영상으로 전달했을 때의 차이점 등 영화가 가지는 매체로서의 특징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게 된다.

이와 달리 문화 자체의 맥락에 주목한다면, 영화 자체의 특성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액션·스릴러·로맨스·코미디 등의 영화장르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장르는 소설을 포함한 서사물의 장르와도 연결되며 고전소설의 경우 로맨스·액션·코미디·역사 등의 장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는 영화가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통속서사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녀가 만나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영화나 고전소설 모두 ‘사랑’을 통속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결국 통속문화의 맥락에 주목할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존재하는 오늘날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고전소설이 중요한 제재가 될 수 있다. 이는 고전소설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대중문화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과거의 고전소설과 오늘날 대중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통속문화의 맥락에서 소설을 교육하자는 것이다. 과거의 것이 아닌 오늘날에도 유용한 고전소설의 가치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 V. 결론 -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상으로 고전소설이 통속문화의 맥락 안에서 오히려 오늘날 의미 있는 교육제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고전소설 연구자들이 느끼는 ‘고전소설의 위기’는 사실상 서양 근대문학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문학의 위기이다. 문학을 좁은 범주에서만 유지하려고 한다면,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문학교육 자체가 학생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문학교육의 위기는 문학을 문화로 확장해야 극복할 수 있으며, ‘고전소설’은 ‘고전’이 아닌 당대의 통속소설로서 재맥락화하고 이를 오늘날 대중문화와 연결시켜 교육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현행 교과서의 영역별 구분 및 성취기준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교육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주제 중심의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다양한 매체를 포함한 대중문화와 과거의 고전소설을 연결시켜 교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단지 고전소설 교육의 변화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영역별 성취기준에 따라 구성된 문학교과서의 변화, 나아가 전체 문학교육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과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은 바뀌지 않으니 대학 졸업자가 담당하는 고등학교 교육도 달라질 수 없다.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의 교과목을 나누는 것이 시정되어야 하고 매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 가능할 때 고전소설은 ‘과거’에서 벗어나 현대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2009개정시기 교육과정(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go.kr)

2015개정시기 교육과정(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go.kr)

『IP 비즈니스 기반의 웹소설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 2018.

(<http://www.kocca.kr>)

권영민 편, 『문학』, 지학사, 2014.

김윤식 편, 『문학』, 천재교육, 2014.

김은정 편, 『문학』, 미래엔, 2014.

김창원 편, 『문학』, 두산동아, 2014.

박중호 편, 『문학』, 창비교육, 2014.

우한용 편, 『문학』, 비상교과서, 2014.

윤여탁 편, 『문학』, 미래엔, 2014.

이승원 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4.

정재찬 편, 『문학』, 천재교육, 2014.

조정래 편, 『문학』, 해냄에듀, 2014.

한철우 편, 『문학』, 비상교육, 2014.

### 2. 단행본

이영미, 『한국 대중가요사』, 시공사, 1998.

최미진, 『한국 대중소설의 틈새와 심층』, 푸른사상, 2006.

### 3. 논문

권순궁,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지향과 방법」, 『한국고전연구』 제1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27~58면.

김동환, 「국어과 교과서의 문학 제재와 관련된 쟁점과 제안」, 『국어교육학연구』 제47집, 국어교육학회, 2013, 43~67면.

김용기, 「교과 속 고소설의 정전화 양상과 교수·학습방향」, 『고소설연구』 제38집, 고소설학회, 2014, 95~128면.

김종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 교육의 과제」, 『한국고전연구』 제2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30면.

\_\_\_\_\_, 「문학교육의 문화론적 관점」, 『국문학과 문화』, 한국고전문학회, 2001, 85~

102면.

- 김현정, 『2015개정 ‘문학’ 교육과정 적용의 쟁점 탐색』, 『문학교육학』 제55집, 문학교육학회, 2017, 121~147면.
- 류수열,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영역의 논리』, 『국어교육학연구』 제51집, 국어교육학회, 2016, 135~159면.
- 박현호, 『낭만, 한국 근대문학사의 은폐된 주체』, 『한국학연구』 제25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231~258면.
- 서유경, 『고전소설교육 실행과 연구의 과제』, 『고소설연구』 제38집, 고소설학회, 2014, 67~93면.
- 서인석, 『고전문학 연구와 국어교육』,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29~62면.
- 송성욱, 『고등학교 교과서 구성과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점』,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269~294면.
- 이기대,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본 <홍계월전>의 정전화 과정』, 『우리문학연구』 제37집, 우리문학회, 2012, 89~119면.
- 이민희, 『재미있는 고소설 교육을 위한 실천적 수업활동의 실제』, 『문학교육학』 제52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299~335면.
- 이영미, 『문학사학을 위한 시론』, 『국제어문』 제36집, 국제어문학회, 2006, 325~359면.
- 이지영, 『일제 강점기 고소설의 ‘고전’ 형성 맥락』, 『고소설연구』 제38집, 고소설학회, 2014, 37~66면.
- 임치균, 『고전소설의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 방안』, 『고전소설 교육의 과제와 방향』, 월인, 2005, 63~86면.
- \_\_\_\_\_, 『번역의 관점으로 본 한글 고전소설 현대어화의 실제』, 『돈암어문학』 제24집, 돈암어문학회, 2011, 7~32면.
- 정병현,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제1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5~26면.
- 정선희, 『고전소설 연구와 교육의 소통』, 『고소설연구』 제38집, 고소설학회, 2014, 129~155면.
- 조광국, 『고전대하소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본 TV드라마의 서사전략과 주제』, 『정신문화연구』 제31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389~411면.
-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제2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5~82면.
- 조희정, 『2009개정 교육과정 시기 국어·문학교과서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3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63~118면.

- 천정환,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 『상허학보』 제19집, 상허학회, 2007, 11~48면.
- 최지현, 『2015개정 교육과정과 문학교과서의 도전』, 『청람어문교육』 제57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6, 59~93면.
- 최홍원, 『고전문학 제재의 수록 맥락과 교육적 인식의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제3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5~35면.
- 한길연,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고전 대하소설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고전문학과교육』 제32집, 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16, 119~158면.

## Reorgan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fiction education in the context of popular culture

Yi, Ji-young

In the literature textbook Korean traditional fictions are usually in the area of 'The range and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re are not so many Korean traditional fictions in textbooks, but also the kind of thing is biased. As the result, Korean traditional fictions tend to be recognized only as products of the past. Moreover, students do not have much interest in traditional fictions in the textbooks. However, it is not the only thing students are bored with. Students have a negative reaction to the literature in their textbooks, too. This crisis of literary stems fundamentally from the narrow sense of literature based on modern Western literature. Therefore, to solv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literature to culture, and in the same context traditional fictions should be re-understood as a popular novel of the time, not a classic. In order to educate traditional fictions in the cultural context, we can consider ways to organize textbooks by subject. Students will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the genre of each text and the media characteristics that make up the text, as they looking at various kinds of texts on important social topics of today together. Furthermore, through that way integrated education for a new era will be possible.

keywords: literature textbook, Korean traditional fictions, Curriculum revised in 2009, Curriculum revised in 2015, the crisis of literary, popular culture, integrated education.

접수일자: 2018. 9. 30.  
심사기간: 2018. 10. 1.~2018. 11. 10.  
게재결정: 2018. 11. 10.